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삼십일호

Jeff Pippenger

2026-01-18

31번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세 가지 메시아적 성취는 일요일 법령 이정표의 세 요소를 식별한다. 곧 1844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작은 무리의 흠어짐과 십자가에서의 제자들의 흠어짐이 표상하듯, 일요일 법령 때 하나님의 백성이 흠어지는 것이다. 두 흠어짐은 모두 일요일 법령과 일치한다. 예언적 전환점의 상징인 갈릴리와 관련하여, 일요일 법령 때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은 어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른 양 떼, 곧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으면서 안식일 논쟁의 문제에 깨어나는 열한 시의 일꾼들이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은 심판의 두 번째 단계로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고, 이어 일요일 법령에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을 상대한다.

열 번째 메시아적 이정표는 일요일법 흠어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마태복음 26:56.

예측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라. 내 목자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흠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돌리리라. 스가랴 13:7.

"머지않아 우리는 크게 흠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기초, 535쪽.

"우리가 서로 떨어져 흠어지고,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과의 교제라는 특권 없이 우리 각자가 홀로 굳게 서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고, 그분이 당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Review and Herald, 1890년 3월 25일.

열한 번째 메시아적 이정표는 이방인의 부르심이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닷길과 요단 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여; 어둠에 앉아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마태복음 4:14-16.

예측

그러나 전에 곤고하던 때와 같은 어둠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에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치셨으나 그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서 더 심하게 치셨느니라. 어둠 속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9:1, 2.

주일법이 시행될 때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이방인들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박해로 인해 신실한 자들이 흠어지고 그 메시지가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줄 것이요, ... 참으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태복음 10:17, 18, R. V. 박해는 빛을 퍼뜨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일이 아니었다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를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진리는 왜곡되어 전해져 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 그들은 거짓 고발을 들어 왔다. 종종 그 참된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길은, 믿음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된 자들의 증언이다. 심문을 받는 가운데 이들은 답변을 요구받고, 재판관들은 그들이 하는 증언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종들에게 베풀어져 그 위기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 때에 무엇을 말할지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의 종들의 마음을 비추실 때, 진리는 그 신적 능력과 귀함 가운데 제시될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일어나 제자들을 고소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손실과 고난,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신적 모범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대리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사이의 대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 통치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될 때까지 순교자들의 용기와 굳센 의지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때 구주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증언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사도행전 4:13. 스테반에 대해서는 "공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지혜와 영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6:15, 10. 또 바울은 가이사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에 관하여 기록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의 첫 변론할 때에 나를 변호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4:16, 17, R. V.

"그리스도의 종들은 재판을 받을 때 제시할 미리 정해진 변론을 준비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들을 날마다 마음에 쌓아 두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했다. 그들이 재판에 넘겨질 때, 성령께서 꼭 필요한 바로 그 진리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 떠올려 주실 것이었다." The Desire of Ages, 354, 355.

심판은 9/11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고, 그때 심판은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떼로 옮겨간다.

열두 번째 메시아적 이정표는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부르짖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마태복음 12장 17-21절.

예측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이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었으니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땅에 공의를 세우기까지 그렇게 하리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릴 것이다. 이사야 42:1-4.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마감은 2023년 7월,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 누워 있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거리에서 한 음성이 들렸을 때 시작되었다. 그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마감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마태복음에는 십사만사천의 개혁 운동의 주요 이정표를 식별해 주는 메시아적 성취가 열두 가지 있다. 그 열두 이정표는 메시아로 예표되어 있다. 1989년; 1996년; 2001년 9월 11일; 2020년 7월 18일; 2023년 7월; 2024년; 한밤중의 외침; 제사장들의 분리; 일요일 법령이 모두 식별되어 있으며, 9/11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일요일 법령에는 흠어짐에 대한 내적 증거가 있으며, 이어서 열한시 일꾼들의 심판 기간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따른다. 마태복음에는 십사만사천의 개혁 운동의 아홉 가지 이정표가 직접적으로 식별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알파이고,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이다. 마태복음은 그 의미가 말세까지 포함되어 있던 예언적 걸작이다. 그 안에는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의 알파에 상응하는 오메가의 열두 장이 들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알파로서, 그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의 영감된 관계와 평행한다. 그들의 예언적 관계에 관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진 바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해 들은 바는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와 같은 예언의 흐름이 이어진다.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지만, 또한 열린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가르침은 분명하며,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다니엘서에서와 동일한 예언의 계열이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언들은 반복하셨는데, 이는 그것들에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함을 보여 주신다. 주께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9, 8.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의 줄기’를 이어받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게 된다. 이는 ‘complement’라는 단어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보완이 있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다. 봉함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중 그 부분이다. 천사는 명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다니엘 12:4. 사도들의 행적, 585.

마태복음,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요한은 우리가 말한 비밀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쪽.

연구를 다시 요엘서로 돌리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던 베드로의 예언적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맥락 속에 놓고 살펴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가이사라 빌립보, 곧 다니엘서 11장 13-15절의 파니움에서의 베드로가 지닌 엄청난 예언적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에 대한 나의 관찰을 요약해 보겠다.

마태복음은 세 가지 뚜렷한 예언적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처음 10장이고, 두 번째 흐름은 그 다음 12장, 세 번째 흐름은 그 뒤의 6장으로 이루어진다. 처음 10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를, 다음 12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를, 마지막 6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를 나타낸다. 나는 아직 이 관찰을 분명히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마태복음이라는 캔버스 위에 보다 굵은 획을 계속 그려 나가고자 한다.

11장부터 22장까지의 둘째 계열은 둘째 천사로 대표되며, 둘째 천사는 항상 중복을 지시한다. 이는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선언 때문이다.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는 족장 아브람을 통해 선택된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이어지는 세 단계의 언약을 제시한다. 그 열두 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절은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규정하며, 그것은 세 단계 가운데 둘째 단계에서 확립되었다. 마태복음의 병행되는 언약 계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절은 시몬 바요나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대목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베드로의 이름은 십사만 사천을 상징하며,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는 부류를 대표한다. 단지 예수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예수께서 밝히신 바로 그 메시지이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15-17.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 아브람의 이름이 언약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바뀌었듯이, 베드로의 이름도 바뀌었고, 그의 이름은 14만 4천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에서, 큰 논쟁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으로 밝혀지며, 그 교회는 지옥의 교회들을 이길 것이다. 14만 4천은 선택된 언약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이며, 베드로는 그 무리를 대표한다.

베드로는 동시에 최초의 그리스도인 교회, 곧 제자들의 교회를 대표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기초이시며 또한 머릿돌이시고, 베드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신부와 마지막 그리스도인 신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한 구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동시에 상징한다.

그 한 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는 열두 장의 중심 절이며, 베드로는 첫 신부이자 마지막 신부로서 "이중 역할"을 한다. 마지막 신부는 사탄의 회당과 전쟁을 벌이게 되며, 마지막 신부는 두 집단으로 구성될 것이다. 한 집단은 14만 4천이고, 다른 집단은 큰 무리이다. 큰 무리는 서머나로, 14만 4천은 빌라델비아로 대표된다.

십사만 사천 명은 빌라델비아인들이며, 18절에서의 베드로의 이름 변화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나타낸다. 그는 인침 받은 자들을 상징하며, 그 구절은 언약에 관한 열두 장의 바로 중심 구절로서, 표징이 할레로 규정되는 창세기 열두 장의 바로 중심 구절과도 대응한다.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은 열두 장으로 된 언약 증언에 세 번째 줄을 제공하며, 그 열두 장의 중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땅의 왕들과 결혼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도 여덟째이며 일곱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7:11.

이 구절은 큰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을 식별하는 데 관련되어 있으며, 바벨의 첫 몰락은 창세기의 열두 장 언약선의 첫 장에 있었다. 베드로는 중심 구절에서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며, 그것은 창세기의 중심 구절과 일치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구절에서 큰 바벨론의 몰락은 바벨의 위대한 사냥꾼 니므롯의 이야기에 결말을 맺는다.

이 세 예언적 선 각각의 중심 구절은 하나님의 인 또는 짐승의 표를 식별한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바벨론의 죽음의 언약은 요한계시록에서 종결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 위에 선으로 함께 놓일 때 세 선 모두에 시작과 끝을 부여한다. 베드로가 반석과 지옥의 문 사이의 대쟁투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곳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니므롯), 무너졌도다(로마의 창녀)'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의 세 선 중 둘째 선은 바벨론의 두 번의 무너짐을 식별하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것은 참된 결혼이 완성되는 바로 그 자리, 곧 일요일 법에서, 거짓 결혼을 제시한다. 그것은 숫자 '8'을 참된 여덟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방한 위조물로 제시한다. 또한 교황권은 하나님을 위조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것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치가 들려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 곧 일요일 법에서 올라온다.

마태복음에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열두 가지 있으며,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에서 500개 사이로 있다. 마태복음에는 명시적으로 확인된 성취가 열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른 세 복음서 어느 것보다도 훨씬 많다. 그 열두 가지 성취는 144,000의 개혁운동에 있는 아홉 개의 구별되는 이정표와 일치한다. 아홉은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아홉'을 넘어서는 수는 없으며 아홉 이후의 모든 수는 1부터 9까지의 아홉 개 숫자와 0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홉은 총만이다. 그 아홉 개의 이정표 가운데 둘에는 마태복음의 성취가 하나 이상 해당한다. 9/11에는 두 가지가 있고, 일요일법령에는 세 가지가 있다.

1989년의 끝의 때, 1996년의 기별 공식화, 그 뒤를 이은 9/11, 이어서 2020년 7월 18일의 실망, 이어서 2023년 7월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이 2024년의 부활로 이어졌고, 그것이 한밤중의 외침으로 이어지며, 그 뒤로 제사장들의 분리가 뒤따르고, 일요일 법령에서 절정을 이룬다. 아홉 개의 이정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두 증인을, 다른 하나는 세 증인을 가진다. 9/11에는 둘, 일요일 법령에는 셋이다. 이것은 14만 4천의 개혁 노선에서, 9/11의 두 증인부터 일요일 법령의 세 증인까지가 14만 4천의 인치는 시기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두 개의 이정표는 모든 개혁 운동과 일치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9/11부터 일요일 법령까지 14만 4천의 인치는 시기를 강조하고 식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9/11에서는 두 증인을, 일요일 법령에서는 세 증인을 식별한다. 9/11의 두 증인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며, 일요일 법령의 세 증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한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들로 도출된 선은 인치는 때를 분리하여 부각시키는 한편, 인치는 때의 역사에서 둘째 천사를 알파로, 셋째 천사를 오메가로 규정한다. 이는 인치는 때의 양쪽 끝이 숫자 2와 숫자 3으로 마감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23, 즉 속죄의 상징이 인치는 때의 전체 역사 위에 놓이게 된다.

마태복음에는 각각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나타내는 세 개의 예언적 줄이 있으며, 마태복음의 둘째 줄에 있는 열두 장은 14만 4천과의 언약을 나타낸다. 이는 그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맺은 알파 언약에 대한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둘째 천사와 관련하여, 베드로가 최초와 최후의 그리스도인 신부를 모두 대표할 때 베드로의 이중성이 둘째 천사에서의 이중됨이라는 예언적 요구를 확립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증인의 근거로 숫자 열둘은 열두 장으로 된 세 줄을 함께 묶는 밧줄이므로, 마태복음에서 숫자 열둘의 또 다른 표현을 발견할 때에는 그것이 마태복음의 다른 열둘과 일치해야 한다.

상징적인 숫자 11로 시작하여 그 상징적 대응수인 22로 끝나는 마태복음의 열두 장은, 열두 가지 메시아적 성취로 표상되는 십사만 사천의 개혁노선과 일치하며, 이로써 둘째 천사의 노선에서 두 번째 '배가'를 드러낸다. 열두 가지 메시아적 성취와 열두 장은 함께 둘째 천사의 '배가'가 되지만, 이것들을 곱하면 144,000을 나타낸다. 베드로가 배가되고, 숫자 열둘도 배가된다. 이러한 배가들은 바벨론의 '두 번의 몰락'이라는 배가를 성취한다.

11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를 나타낸다. 열은 시험을 상징하며, 세 번의 시험 중 첫째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이다. "열"은 시험을 상징한다. 마태복음이 알파이고 요한계시록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두 책 모두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한다. 1장에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을지 말지로 시험을 받는다. 그와 대응되는 인물은 세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로, 그는 믿지 않아 같은 시험에 실패했다. 한 사람은 섭리적인 탄생을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의심했다.

2장에서 헤롯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두려워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도피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시험을 가져왔는데, 화잇 여사는 이것을 사할을 가르치는 시험이라고 규정한다. 그녀는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었다"고 썼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부르는 시험의 기별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는 요한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라고 물은 데서 드러난다.

그런 다음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금식은 세 가지 뚜렷한 시험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는 그 세 가지 시험이 언제나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 표상되기 때문이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써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셨다. 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는 첫 번째 칙령의 역사 속에서 성전의 기초가 놓였고, 밀러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첫째 천사의 역사 속에서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다. 그 기초는 팔복이며, 뒤이어 나타난 그의 기적들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데로 이어져 10장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서 열두 제자가 자리를 잡았고, 영감은 제자들이 기독교회의 기초였다고 밝힌다. 11장에 이르면 그 기초가 완성되었다.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사역하고, 예수님은 홀로 계시며, 이것이 10장과 11장 사이의 뚜렷한 단절을 보여 준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며, 그것은 둘째 천사의 도래로 끝났다. 둘째 천사는 밀러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의 경우처럼 분열, 곧 분리를 일으킨다.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11장에서는 그분이 홀로 계신다.

제11장부터 제22장까지는 둘째 천사를 나타내며, 제23장부터 제28장까지로 이어져 셋째 천사의 세 번째 선이 된다. 물론 셋째 천사는 일요일 법령에 이르며, 이는 제26장부터 제28장까지의 유월절이 나타내는 바이다. "23"은 속죄의 상징이며, 그 여섯 장 중 처음 것들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마지막 세 장은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가운데의 두 장(24, 25장)은 둘째 천사를 나타낸다. 마지막 세 장에는 "23"개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들어 있으며, 제23장을 첫째 천사 또는 시작으로, 제26장부터 제28장까지를 셋째로 하여 "23"개의 이정표로 정렬시킨다. 제23장은 첫째 천사이고, 다음 두 장은 둘째 천사이며, 마지막 세 장은 셋째 천사이다.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부분은 셋째 천사를 나타내며, 그것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23장은 첫째 단계이자 첫째 천사입니다. 24장과 25장은 둘째 단계이자 둘째 천사입니다. 26장, 27장, 28장은 셋째 단계이자 셋째 천사입니다. 첫째 천사는 한 장, 둘째 천사는 두 장, 셋째 천사는 세 장입니다. 셋째, 곧 유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하며, 이는 다시 일요일 법과 상응하고, 또한 오순절로도 표현됩니다.

오순절은 50을 의미하며, 50은 희년의 상징이다. 희년에는 일곱 해의 일곱 번째 주기의 끝인 마흔아홉째 해가 포함된다. 숫자 49는 50에 앞서지만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태복음의 세 번째 줄은 23장으로 시작하고, 이어 두 장(24장, 25장)이 뒤따르는데, 이들은 합이 49가 되며 숫자 50을 나타내는 세 번째 천사 바로 직전에 놓인다.

여섯 장으로 이루어진 그 연속의 시작은 "23"이고 끝은 "23"개의 이정표이며, 26장에 27장과 28장을 더한 합계는 "81"로, 이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자신의 대제사장적

사역에서 사용하실 피 흘림을 지시하는 바로 그 구절들 속에 새겨진 제사장들의 상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대의 소망』의 "81장" 제목은 마태복음 28장을 바탕으로 한다.

제 81장 -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장은 마태복음 28장 2-4절, 11-15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대의 소망, 780.

숫자 "81"은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들의 7일간의 위임식이 규정되어 있고,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 규정되어 있다. 역대하에서는 "81"명의 제사장이 웃시야 왕에 맞서며, 그 본문은 14만 4천의 인침 메시지를 확립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높아져 그의 멸망에 이르렀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분향단 위에서 분향하려고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갔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고, 그와 함께 용감한 여호와와 제사장 팔십 명도 있었다. 그들이 웃시야 왕을 막아 서서 그에게 말하였다.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네가 할 바가 아니요, 분향하도록 성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 성소에서 나가소서. 네가 범죄하였으니, 이 일로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웃시야가 분하여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 하였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분을 내는 동안 여호와와 전, 곧 향단 곁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들이 곧 그를 거기서 쫓아내고, 그도 또한 서둘러 나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다. 웃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있었고, 나병 환자였으므로 별궁에 거하여 여호와와 전에서 끊어졌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다. 역대하 26:16-21.

81이라는 상징은 웃시야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시도에 반대한 제사장들과 연관되어 있다. 웃시야에 관한 본문의 예언적 구조는 다니엘서 11장 11절과 12절의 예언적 구조와 일치한다. 두 본문 모두 군사적 승리, 특히 북방 왕에 대한 최근의 승리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진 남방 왕을 지목한다.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다니엘서 11장 11절이 성취되었을 때, 그는 웃시야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 했으나 제사장들의 저항을 받았다. 구절 위에 구절을 더하여 두 증인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한다.

The Desire of Ages의 제81장은 마태복음 28장을 바탕으로 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음을 밝힌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렇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히브리서 8:1.

숫자 "81"은 제사장들의 상징이며, 마태복음 26~28장에서 세 번째 줄의 세 번째 단계의 합이 81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합하면 49가 되고 첫 번째 단계는 23이다. 81은 웃시야의 증언에서 80명의 제사장과 한 명의 대제사장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80명의 제사장은 인간이며, 대제사장은 신적이다. 81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81이라는 수에서 1은 신성을 나타낸다.

11에서의 숫자 1은 인류와 신성을 모두 상징한다. 21이라는 수에서 1은 신성을, 20은 인류를 상징한다. 둘과 하나의 결합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셋과 하나의 결합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인성과 신성이다.

4와 1의 조합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네 번째 세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섯과 하나의 조합은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를 가리킨다.

6과 1의 결합은 인간이 일곱째 날 안식일과 맺는 관계를 나타내며, 그 안식일의 주는 신이다. 숫자 '6'은 인간을 상징하고, '1'은 그리스도를 뜻한다.

7과 1의 조합은 라오디게아의 일곱째 교회가 빌라델비아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낸다.

81은 제사장들과 그들이 대제사장과 맺는 관계를 상징한다.

아홉과 하나의 조합은 완성을 가리킨다. 임신 기간은 아홉 달이다.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홉 세대가 있었고, 그 뒤 언약에 이르게 한 아홉 세대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구시에 숨을 거두셨다. 아홉과 하나의 조합은 그분의 백성을 인치는 일의 마무리를 가리킨다.

이 맥락에서 숫자 1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고, 숫자 2는 인류를 가르치는 신적 교사이다. 숫자 3은 세 천사의 메시지이며, 그것은 숫자 2에서 그들이 배우는 메시지이다. 숫자 4는 네 번째 세대를 지목하며, 따라서 다섯 현명한 처녀가 나타나고 여섯째 창조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때의 예언적 역사를 특정한다. 이어서 일곱째 단계는 필라델피아로의 전환과 일곱 중 여덟째 존재의 수수께끼를 밝힌다. 그 시점에 언약이 성취되고, "81"의 제사장직이 숫자 9가 상징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들어 올려진다. 각 단계에서 숫자 1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그는 또한 기묘한 계산자 팔모니이기도 하다. 81은 제사장들의 상징이다. 팔모니가 모든 수를 창조했다.

숫자 11은 22의 절반을 뜻하며, 둘 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한다. 최근 글에서 나는 시작과 끝을 다루는 두 문장을 포함했다.

첫 번째 진술은 엘렌 화잇이 성소에 대한 초기 환상을 보았을 때,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이 그녀에게 보여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말세에 '성육신 교리'가 부드러운 광채로 빛난다는 것도 보았다. 처음에 하나의 빛이었던 안식일은 마지막에 성육신 교리를 예표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곧 성육신 교리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교리이며, 이로써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본을 보이셨다.

11 더하기 11은 22이며, 숫자 11은 열두 장으로 된 언약선 각각의 시작을 이루며, 각각은 22로 끝난다. 성경 안의 11장들과 11절들은 144,000의 이정표를 나타낸다.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때의 외적 경계선이다.

남쪽의 왕은 격분하여 나아가 그와, 곧 북쪽의 왕과 싸울 것이며, 그가 큰 군대를 일으키겠으나 그 군대는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다니엘 11:11.

2020년 7월 18일

첫 번째 실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이자 절정의 기적인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일을 지체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흘을 기다리셨다. 요한복음의 그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지목된 일곱 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을 가리킨다.

첫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 일곱 가지 기적을 살펴보는 일에는 큰 빛이 있으며, 모든 신학자들은 그 기적들이 직접적으로 지목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요한복음에는 오직 일곱 가지 기적만이 있다고 의견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덟 번째 표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그것은 기적이며 그의 부활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의 부활은 여덟 번째 기적, 곧 그 일곱의 것이다. 왜냐하면 앞선 일곱 가지 기적은 각각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11.

2023년 7월

2023년 7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생명의 영을 지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고, 그들을 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1:11.

요한은 일요일 법령 8일 전에 태어난다. 이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일요일 법령 때에 말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이름은 일요일 법령 때 '사가랴'에서 '요한'으로 바뀌며, 그 이름의 변경은 언약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 탄생은 2020년 7월 18일 거리에서 살해된 자들의 부활을 예표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11.

이천이십사

이사야는 1849년에 성취된 두 번째 모임을 가리킨다. 그 두 번째 모임은 2023년 7월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쳐질 때 끝난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사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리라. 이사야 11:11.

주일법 직전

예수께서는 방금 승리의 입성을 마치셨고, 이로써 한밤중의 외침에서 일요법령으로의 전환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일요법령 이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열두 제자를 곁에 두고 계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시어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신 뒤, 저녁때가 되자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마가복음 11:11

일요일 법령 직전, 십사만 사천에게 인침이 마쳐질 때, 신성의 남편과 인류의 아내가 연합되는 일이 마쳐지고, 속죄가 끝났으므로 그 둘은 영원히 하나가 된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자도 남자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11.

1863년의 반역 이후로 오래 지체되어 온 사라의 기적 같은 출생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이 쌍둥이를 낳을 때 이루어진다. 첫째 아이는 한밤중의 외침 때 태어나고 둘째 아이는 일요일 법령 때 태어난다. 둘째로 나온 아이는 여리고에서 라합의 표징을 상징하는 주홍색 실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으로 또한 사라 자신도 씨를 잉태할 능력을 얻었고, 나이가 지나서도 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11.

라오디게아를 위한 주일법

예레미야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대한 심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11.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재림주의에 대해 내린 판단에 동의한다.

이 성읍은 너희의 솔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에스겔 11:11.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게 된 과정에는, 그들이 스스로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의 언약 백성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요일 법령 때 재림주의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1:11.

그들이 거부하기는 하지만 윌리엄 밀러의 사역에 기초한 재림주의는 여전히 성전을 세운 운동이다. 그러나 또한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경우와 같이,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고 그들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빼앗겨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할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네게 명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네게서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11.

필라델피아의 주일법

선지자들에 따르면, 일요일 법령 때 승리하는 교회는 자신의 땅에 자리 잡으며, 그 땅은 늦은 비의 기별로 풍성한 땅이다. 여기고는 1863년에 재건되었고, 일요일 법령 때 여기고가 무너진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 신명기 11:11.

도시는 왕국이며, 승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대표한다. 그 승리한 교회의 나라는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시작되며, 그때 그의 교회가 모든 산과 언덕 위에 높이 들려 높임을 받는다.

정직한 사람들의 축복으로 도시는 높임을 받지만, 악인들의 말로 인해 무너진다. 잠언 11:11.

천사가 코넬리우스에게 와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지시한 때는 제구시였는데, 이로써 일요일 법령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시점을 가리킨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가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부정한 짐승을 먹는 환상의 맥락에서였다. 이것은 일요일 법령에서 성취된다. 제구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제구시와 일치한다. 제구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삼시에 시작되어 여섯 시간 뒤에 죽으신 그 기간의 끝을 나타낸다. 이는 베드로가 제삼시에 다락방에 있고 제구시에는 성전에 있는 그와 같은 기간이다. 한 제구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다음 제구시에 베드로는 성전에서 요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고, 코넬리우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보라, 즉시 내가 있던 집에 이미 세 사람이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나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사도행전 11:11.

그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들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요, 그들의 시체를 가증히 여길지니라. 레위기 11:11.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이 약 10인치, 가로·세로 6인치인, 흑단과 진주로 정교하게 상감된 기묘한 보석함을 내게 보내시는 꿈을 꾸었다. 그 보석함에는 열쇠가 하나 달려 있었다. 나는 즉시 그 열쇠를 집어 보석함을 열었는데, 놀랍고도 경이롭게도 그 안에는 갖가지 크기의 보석과 다이아몬드, 귀한 옥석들, 그리고 온갖 크기와 가치의 금화와 은화가 가득 차 있었고, 보석함 안에서 저마다의 자리에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렇게 정돈되어 있으니 그것들은 오직 태양에만 비길 수 있는 빛과 영광을 반사하였다. ..."

"나는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광경에 눈이 부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것들은 전보다 열 배나 더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흠어 먼지 속에 짓밟았던 그 악한 자들의 발에 의해 모래에 문질러져 닳아버린 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상자 안에 아름다운 질서로,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것들을 던져 넣은 사람의 눈에 띄는 수고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크나큰 기쁨에 소리쳐 외쳤고, 그 외침에 나는 깨어났다." 초기 저술, 81-83.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먼 미래로 미루고 있다. 나는 늦은 비가 한밤중의 외침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열 배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Spalding and Magan, 5.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에 관한 모든 일을 물었을 때, 왕은 그들이 그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십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서 1:18-20.